

4~5》 기사를 통해 되돌아본 2016년



8》 몰래산타 · 경희후원의 집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신청

-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 1차 신청기간 : 2016. 11. 17(목) ~ 12. 13(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사진=이수형 기자)

## “대학이 기만” 청소노조 총장실 점거 직고용 ‘경희모델’ 사실상 무산에 항의 표시

청소노동자 ‘직고용’ 갈등 폭발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지난 2일 공공운수노조 경희대분회(청소노조) 주도로 우리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총장실 점거에 나섰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 노동자 직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론 바 ‘경희모델’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항의이다. 대학미화 외주업체인 C&S자산관리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고, 대학이 다음해 초 용역업체 재경매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을 놓치면 경희모델 설립시기가 최소 2년 연장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11시 경부터 총장실을 점거한 청소노조는 대학본부와의 회의가 끝난 오후 8시 경에야 철수했다.

대학본부는 지난해 자회사를 설

립해 미화용역을 사설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직접 청소노동자 처우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청소노조 측은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자회사 설립이라는 경희모델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이후 설립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총장실 점거 사태에 이른 것이다.

청소노조 측은 사설 용역업체에 이용료를 제공하는 일에 의문을 제기한다. “용역업체로 들어가는 노무관리비가 노동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2년을 주기로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을 재고용하는 형태로 문제로 지적한다. 청소노조 백영란 부문회장은 인터뷰 중 한 청소노동자를 가리키며 “재고용 때문에 71세 나

이에 신입사원인 분도 있다”며 “연

차가 2년마다 사라지니 몇 년을 일해도 월급 140만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영란 부문회장은 항의농성 당시 “지금껏 눈의 된 자회사 설립안을 학교가 저버렸으니, 이제는 직접고용만을 원한다”고 분개했다.

청소노조는 점거 당일 오후 6시

경성사된 대학본부와의 회의결과에 따라 5일 오후 1시 총장주제의 노사회에 참석한다. 해당 회의에서 경희모델 설립안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노조의 요구가 용역업체 재계약이 이뤄지는 다음해 초까지, 대학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학내 주요 단체 임원 선거 속속 마무리

학내 주요 단체 임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교수의회의 경우 전체 교수의회 및 서울지회에서 이성근 교수가 409표를 받아 송상호 교수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국제지회에서는 길재호 교수가 찬성을 92.3%로 의학지회에서는 이석환 교수가 86.5%의 찬성을 각각 당선됐다. 직원노조에서는 김종현, 이광봉 후보가 215표를 받아 장백기, 김종민 후보의 205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양 캠퍼스 모두 투표율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 57.6%, 국제의 경우 63.9%의 찬성을 기록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지 못해 모두 낙선했다.

## 구멍 뚫린 선거시행세칙 … 선거 운영에 혼란 키워

국제캠 선거 파행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국제】2017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지난 23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개표과정에서 총학생회(총학)과 총여학생회(총여)의 선거인명부가 뒤바뀌고, 일부 단과대학에선 자물쇠 열쇠가 총학 투표함에 함께 봉인되는 등 미숙한 선거운영이 반복됐다. 이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미숙한 대응과 선거시행세칙의 허점 탓이다.

전정대에서는 선관위원들이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투표함을 열기 전에 진행돼야 했던 공명선거 및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입후보자의 이의제기로 개표 도중 뒤늦게 시행했다. 또한 최종 개표 결과를 저장한 문서를 유실

해 우리신문의 자료를 토대로 당선 공고를 내기도 했다.

응용대에서는 투표함 자물쇠 부문의 서명이 문제가 됐다. 통상적으로 서명은 투표함 자물쇠와 테이프 부분에 걸쳐 표기돼야 한다. 임의로 개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응용대의 경우 테이프에만 서명이 이뤄져 사실상 자물쇠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세칙에 명시돼 있지 않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선관위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위원장은 “밀봉 및 서명 등

에 대한 내용은 세칙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지난 중선관위에 인수 인계 받은 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대의 경우 단과대학 학생회 투표함 열쇠가 총학·총여 투표함 열쇠와 뒤바뀌었다. 결국 해당 열쇠가 봉인된 물품보관함을 찾아 개봉하고 다시 밀봉하는 과정을 거쳐야했다. 공대 제3투표소에서도 단과대학 학생회 투표함 열쇠를 총학·총여 투표함 열쇠와 함께 봉인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3면으로 이어짐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1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19_LCfmJ7dxw4THJUR0YQ)

### 전문가 칼럼

헌법개정, 과연 필요한가  
정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면



이번 호가 2016학년도 2학기 종간호입니다